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만전

전북도, 점검 대상·안전 점검 민관합동기동반 구성 등 준비상황 보고회 가져

전북도가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상황 보고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동구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회의에는 도내 14개 시·군과 도 유관부서인 18개 실과가 참석해 점검 대상, 안전 점검 민관합동기동반 구성, 점검 방법, 홍보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동안 점검할 대상은 제방 등 최근 사고 발생시,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과 출렁다리과 같은 신종시설 등 안전 사각 우려 시설 중심의 1,500여 개소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반'은 시·군별로 토목·건축·소방·전기·가스 등의 전문가 20~30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육안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산사태 취약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점검을 위

해 드론 등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등 교통시설을 점검하게 될 도로관리사업소, 군산시, 무주군, 고창군에서 내실있게 준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발표, 함께 의견을 내었다.

한편, 전북도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26일간 실시되며, 1,500여 개소를 점검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지난 13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윤권하 원광대학교병원장, 김철승 예수병원장, 전북대 김연내과 이창섭 교수, 원광대 감염내과 이재훈 교수, 예수병원 감염내과 장미옥 과장, 이병관 전북도 병원협회장, 김재연 전북도 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5일까지 접수...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유치 도모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가 혁신금융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가 '자산운용 혁신금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과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 금융 빅데이터 관련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최대 5천만 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조건 및 지원자격은 (금융)빅

데이터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선정 후 전북으로 분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5일까지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신청 플랫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coei.creativekorea.or.kr/jeonb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추진으로 도내 금융 빅데이터 개방·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교육과 혁신창업 경진대회 준비와 이를 통한 금융 특화 산업 모델 발굴, 혁신금융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료로, 특히 금융 빅데이터는 타 데이터보다 정확성과 예측성이 높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혁신적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창업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북이 혁신금융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효율적 방역 방안 모색 전문가 머리 맞대

전북도, 코로나19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가져... 백신접종 적극 참여·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강조

코로나19 델타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방역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도는 지난 13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윤권하 원광대학교병원장, 김철승 예수병원장, 전북대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 원광대 감염내과 이재훈 교수, 예수병원 감염내과 장미옥 과장, 이병관 전북도 병원협회장, 김재연 전북도 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송 지사는 회의에서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파속도가 빠른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확진

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라며 "도민들께서 합동이라도 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꾸준히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전북도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주기검사를 실시를 비롯해 확진자와 접촉한 백신접종 완료자를 자가격리로 분류해 방역관리 체계내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며 "위중한 현재 코로나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해 도민들이 예전의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대 이창섭 감염내과 교수와 원광대 이재훈 교수, 예수병원 장미옥 감염내과 과장은 "델타

변이의 전파 속도가 비변이보다 2.5배 빠르고 접촉 완료자에 대한 돌과 감염도 생기고 있지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한 고령자의 중증환자 발생이 현저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50대의 중증환자가 주를 이루는 현상황을 고려할때 가장 확실한 방역 대응 방안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서 접종률을 높이고 지금까지도 민들이 잘 참여해주신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만이 집단면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발생 환자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증환자 중점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르는 의료인력의 부족에 대한 보완책과 피로감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호상 기자

인권가치 사회적 확산·인권존중문화 형성 앞장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 자치회 조직 구성 지역별 순회 워크숍

전북도 지역의 인권 사각지대를 살피고, 인권 증진에 앞장설 '제3기 전라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도는 열경형 도 인권담당관과 김제·부안지역 제3기 지킴이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공연장동 2층 세미나실에서 제3기 도민 인권지킴이단 자치회 조직 구성을 위한 지역별 순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기 지킴이단은 지난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된 제2기 지킴이단에

이어 150명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제3기 지킴이단은 기존 선발 과정에 참여자의 인권역량 향상과 참여 의지 확대를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 수료·2021년 인권옹호자포럼 참여' 과정을 추가, 위촉 단계부터 차별화를 꾀했다.

이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도내 곳곳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등을 찾아 제보해 도민이 권리구제 절차나 진정 접수 방법 안내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제안 등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인권현안 공유 및 스토리 등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수행하며,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침해·차별 및 불편사항 발굴·개선에 앞장선다.

이번 지역별 순회 워크숍은 제3기 지킴이단의 지역 내 인권침해 및 차별 사항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 제보 활성화와 위한 제3기 지킴이단의 역량강화 및 시·군 환경을 고려한 지킴이단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호상 기자

지역별 순회 워크숍은 제3기 지킴이단의 지역 내 인권침해 및 차별 사항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 제보 활성화와 위한 제3기 지킴이단의 역량강화 및 시·군 환경을 고려한 지킴이단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4년 연속 먹는물 분석 우수기관 인증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먹는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험·분석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숙련도 평가기관인 시그마알드리치(SIGMA-Aldrich)가 주관한 '국제숙련도시험' 먹는물 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제숙련도시험'은 공인 기관의 평

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시험·분석능력을 검증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분석기관 등이 분석 결과의 국제적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매년 참가하고 있다.


먹는물 분야 평가항목은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17개 항목이다.

연구원은 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민족' 평가를 받아 '국제 수준 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숙련도 시험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적인 시험·분석능력을 유지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분석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경위원장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